

시나리오

제목	AI와 인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내용	
<p>내 이름은 김남수. 직업은 작가. 10년 전 AI 대체기를 지나면서 직업 대부분이 AI로 대체되었지만, 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계속해서 AI에 의해 일자리를 위협받고는 있다. 또한, AI에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머리가 아파지려 할 때쯤, 틀어놓았던 아날로그 TV에서 뉴스가 나왔다.</p> <p>“전 세계적으로 킬러로봇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인이 킬러로봇을 이용해 사람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민사재판에서만 다루었던 재판 AI를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판의 결과로 이번 정권의 정책 방향의 변화를 이끌 수...”</p> <p>초인종 소리가 들렸다.</p> <p>“나비야 문 앞에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주겠니?”</p> <p>나비는 가정 휴머노이드이다. 나비는 소중한 딸 하나가 태어나면서 많아진 가정 일을 도울 용도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하나는 택배 드론을 구경하고 싶었는지 나비를 따라 현관으로 갔다. 나비가 문을 열자 우편과 택배 드론이 있었다. 나비는 드론 택배 회사로부터 온 알림에 회수 버튼을 눌러 드론을 돌려보냈다.</p> <p>“나비야 어디서 온 우편이니?”</p> <p>“서울지방법원에서 온 우편입니다. 남수의 검색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우편인 거 같습니다.”</p> <p>남수는 AI와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다. 처음으로 재판 AI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건이기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이다. 재판 AI가 도입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다. 기존의 재판 AI는 판례분석을 통한 정형화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으로 이어졌고 인간 판사에게 불신이 있는 국민은 재판 AI에 열광하였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AI는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재판 AI는 판례뿐만 아니라 범죄의 의도와 배경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국민은 형사재판에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열띤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 AI가 도입되었다. AI가 AI를 심판하는 세상이 오다니. 아이러니한 세상이다.</p> <p>“5분 내로 하나가 차를 타지 않으면 유치원에 늦을 것입니다. 차를 아이 안전 모드로 준비 할까요? 정적을 깨는 나비의 말이었다.</p> <p>“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나비야 하나랑 같이 가줘. 난 오늘 출판사랑 가상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p> <p>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 되었기에 아이 안전 모드를 사용하면 아이 혼자도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대비해 나비를 태워 보낸다. 딸은 너무 소중한기에.</p> <p>시간이 흘러 재판 날이 되었다. 남수는 배심원석에 착석하였다. 시선을 돌리자 재판 AI가 있었다. 재판 AI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p> <p>“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을 심문하기 바랍니다.”</p>	

“피고인은 피해자를 킬러로봇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남수는 당황스러웠다. 모른다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순간 변호인이 일어났다.

“검사는 인공지능법 제 2조 3항을 근거하여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이유로 휴머노이드를 개조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로봇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으며 휴머노이드를 개조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정부의 휴머노이드 중앙데이터본부에 살인이 이루어진 3월 16일에 강제로 휴머노이드 시스템이 변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입수되자마자, 집을 조사한 결과, 킬러로봇 관련 계획서와 킬러로봇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배심원 여러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오류가 발생하여 사람을 치게 하면 차주는 얼마의 형량을 받는지 아십니까?”

“재판장님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AI가 재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기각할지 말지를 고민하더니 말을 하였다.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평균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차주의 잘못도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오류가 즉 일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죽게 해도 집행유예와 자율주행자동차 교육을 이행하면 차주의 책임은 끝입니다.”

남수는 이러한 판결이 옳은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AI가 저지른 범죄일까, 인간이 저지른 범죄일까.라고 말이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장치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살인 당해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는 증거에 대해 말하세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피고인은 큰 상실감으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디지털 우울증 치료제, 의료용 불면증 치료 기기를 사용한 이력을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그때 휴머노이드를 개조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피고인의 휴머노이드A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증거로 휴머노이드A의 녹화 영상과 감정 상태, 머신러닝 변화 이력을 제출합니다.”

영상에는 피고인의 초췌한 얼굴로 휴머노이드와의 대화가 담겨있었다. 아들에 관한 얘기, 피해자에 대한 비난, 판결에 대한 무력감이 느껴졌다. 나는 감정적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빠로서 피고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되었다.

“영상을 바탕으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휴머노이드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휴머노이드 정보 이력을 통해 휴머노이드의 감정 상태가 분노와 증오의 형태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된 학습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당혹감으로 채워졌다. 편의와 대화용이었던 휴머노이드가 이렇게나 발전하다니.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다니. AI 발전으로 법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혼란이 심해졌다. 우리는 AI를 이용할 수준이 됐을까. 성급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나는 칼럼 제목을 “AI와 인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로 정했다.